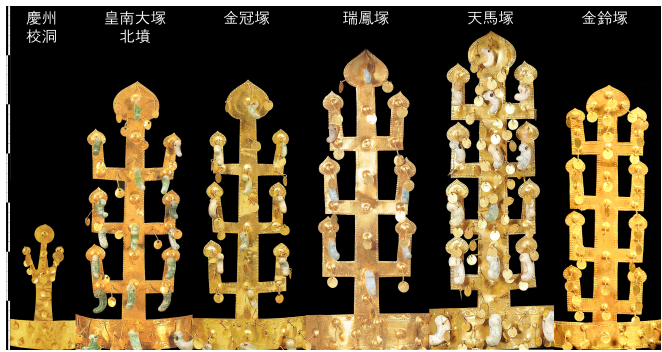


신라금관

함순섭 | 108호 신라금관실 | 18:00~18:30

신라의 ‘나뭇가지모양 관’은 세움 장식의 모양에 따라 변화를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머리띠에 세 개의 맞가지만을 세웠다. 맞가지의 모양은 자연스런 나뭇가지처럼 가지가 밖으로 벌어진 것에서 점차 직각으로 꺾이는 것으로 변화한다. 자연의 나무를 형상화한 듯하며, 초기 형태이므로 ‘시원형식(始原型式)’으로 분류한다. 경주 교동에서 발견된 금관이 대표적이다. 이 형식의 마지막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왕이 착용한 금동관이다. 세움 장식은 맞가지뿐이지만, 그 형태가 직각에 가깝게 꺾여 있어 뒤이은 형식과도 이어진다. ‘나뭇가지모양 관’의 전형은 세 개의 맞가지에 더해 두 개의 엇가지를 조합한 것인데, 가장 다듬어진 형태이므로 ‘표준형식(標準型式)’으로 분류한다. 새로 조합된 엇가지는 사슴뿔을 본떴다고도 한다. 엇가지는 뒤늦게 더해졌으므로 이를 굳이 사슴뿔을 형상화했다고 볼 여지가 적다. 다만 상징 측면에서 나무와 사슴뿔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단계 이후의 맞가지는 한결같이 모두 직각으로 꺾인 형태이다. 표준형식은 황남대총 북분 금관에서 처음으로 완성되며, 금관총(金冠塚) 및 서봉총(瑞鳳塚)의 금관과 더불어 표준형식이 성립하는 단계에 속한다. 표준형식 성립단계의 금관은 맞가지의 마디가 3단인 점이 특징이다. 이후에 만들어진 천마총(天馬塚) 및 금령총(金鈴塚)의 금관은 표준형식 발전단계에 속하며, 맞가지의 마디가 4단인 특징을 지닌다. 즉 ‘나뭇가지모양 관’의 표준형식은 맞가지의 마디가 3단인 것에서 4단인 것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점점 뾰족해지고 화려해지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인 ‘퇴화형식(退化型式)’은 추측하건데 더 이상 금관이 만들어지지 않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관에 내포된 정치적 권위가 사라진 단계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꾸밈이 많아지거나 오히려 급격하게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퇴화형식에서도 가장 마지막은 구리관이나 철관을 적당히 잘라 만든 동관(銅冠)관 철관(鐵冠)이다. 동관과 철관의 착용자는 함께 부장된 방울 등으로 볼 때 이전 단계의 정치적 권위가 사라진 무당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상은 ‘나뭇가지모양 관’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신라의 왕과 왕족은 기록에 따르면 한때 제사장이었으며, 마립간시기(麻立干時期)까지 꾸준히 국가의 제의를 주관하였다. 황금으로 만든 ‘나뭇가지모양 관’은 신성한 나무를 상징하는 듯하다. 이는 통치자이자 국가의 제의를 주관하는 신라의 마립간과 그 일족의 성격에 부합하는 도안이라고 해석된다. 마립간시기 직후인 중고기의 법흥왕(法興王)은 전통제의를 중시하였던 신궁(神宮)을 대신하여 불교를 공인하였고 더불어 국왕의 세속적 권위를 월등히 강화시켰다. 이로써 신라의 왕에게는 전통제위와 관련된 황금으로 만든 ‘나뭇가지모양 관’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듯하다. 다만 나뭇가지모양 관이 지니고 있던 제의적 상징은 그대로 민간에 전승되어 정치적 권위가 사라진 채 무당의 신물로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60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9월 5일)

인간을 담아낸 조선의 지도

백승미 | 특별전시실 및 중근세관 114호 | 18:00~18:30

지도에는 지도를 제작하는 이의 입장과 선택이 반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을 그대로 담아내지는 못하기에, 목적에 맞게 선택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들은 강렬한 희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지도에도 이와 같은 인간 사회의 수많은 이상과 바람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려 통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바람,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바람, 태평성대의 이상을 현실 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 등 인간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소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행정이나 국방을 위해 제작한 세밀한 지도들을 올바른 통치를 통해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위정자의 바람이 잘 드러납니다. 또한 복사꽃 날리는 아름다운 마을 지도는 태평성대의 이상향 속에서, 마치 한 폭의 작품을 감상하듯 방안에 앉아 세상을 보고자 한 누군가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도들은 현실에서도 적극 활용되었는데, 교양인이자 지니고 다녀야 할 일상의 지도에서부터, 땅의 형세로 길지吉地를 살피는 풍수 지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도 한 장에는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림1. <전라도 무장현 지도>, 조선, 19세기
종이에 먹과 색, 154.0×112.0cm, 낱장



그림2. <수진본 지도>, 조선, 18~19세기
종이에 먹과 색 또는 목판 인쇄
11.5×177.2cm, 절첩



제60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9월 5일)

가문의 초상 - 진주 강씨 5대 초상화

권혜은 | 202호 서화실Ⅱ | 19:00~19:30

예로부터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1713~1791)의 집안을 일컬어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라고 하였다. 할아버지 강백년姜柏年(1603~1681)과 아버지 강현姜鉉(1650~1733)에 뒤를 이어 강세황까지 3대가 연속으로 70세 이상, 정1품 이상의 관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하는 영광을 누렸던 가문이라는 뜻이다. 조선 시대를 통틀어 삼세기영 가문은 다섯 가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강세황은 아버지 강현이 61세 때 태어난 막내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형의 과거부정 사건으로 인해 출세를 포기하고 일찍이 처가가 있던 안산에서 자신만의 시서화 세계를 일구며 문예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안목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다 1763년 둘째 아들 강인姜仁(1729~1791)이 과거에 합격하면서 영조英祖는 강세황을 전격 발탁하였고, 61세에 시작한 벼슬길은 한성부판윤까지 오르고 기로소에 입소하는 등 노년까지 활발히 이어졌다. 시서화에 뛰어났던 강세황의 예술가적 재능은 아들, 손자에게까지 이어졌는데, 특히 손자 강이오姜彝五(1788~?)는 시서화에 능하여 김정희金正喜(1786~1856)를 비롯한 당대 서화가들과 교유하였고, 현재 전하는 그의 초상 역시 이재관李在寬(1783~1838)의 작품이다.

그동안 <강현초상>과 강렬한 자의식을 드러낸 강세황의 <자화상>, 이명기李命基(1756~?)가 그린 <강세황초상>은 소개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은 강세황의 아들인 강인의 초상과 강세황의 증손 강노姜潞(1809~1886)의 초상을 각각 구입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입수하였다. <강인초상>은 당시 홍문관 교리를 지내고 있던 단학홍배의 관복상으로 그려졌다. 현재 전하는 관복 초상은 정3품 이상의 쌍학홍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정3품 이하의 단학홍배 초상은 드문 편이다. <강노초상>은 19세기 초상화로는 보기 드문 반신교의좌상으로 화면의 묵서에 따르면 71세를 기념하여 1879년 9월에 그려진 초상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강현, 강세황, 강인, 강이오, 강노에 이르는 직계 5대의 초상화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이게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의 골격과 외모가 서로 흡사하여 역시 한 가문의 초상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명문가의 초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제60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9월 5일)

특별전<황금문명 엘도라도>(4)

오세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신성한 존재 자연 콜롬비아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우리가 사는 지상세계, 땅 속의 지하세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상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샤먼, 그리고 소수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지닌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주요 세계를 수많은 차원들로 다시 나누고, 갈수록 멀어지는 다른 세계들 간의 연결고리에 대해 말합니다. 샤먼과 족장들이 무아지경 속에서 왕래할 수 있다는 곳이 바로 이 세계들입니다.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세계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됩니다. 아마존의 어떤 부족들에게 각 세상은 내부에 그림이나 여러 빛깔의 깃털로 화려하게 장식된 전통 가옥과 같았습니다.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 인디언들은 세상을 커다란 방추(spindle)로 생각했는데, 중심축을 이루는 거대한 방추 자루를 중심으로 하나의 세상이 다른 세상 위에 자리한다고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상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러 개의 중층화된 세계의 복합체로 우주를 인식했습니다.

어떤 부족들의 주술적 신앙에 따르면, 이 세상 너머에 자리하는 세상은 개인의 내적 세상 속 차원들로 구성된 소우주와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세상이 자신이 가진 의식의 내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샤먼들은 무아지경 상태에 이르면 자신들이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우주의 다른 세계로 뚫고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자신들의 존재하는 차원을 탐구할 수 있고 반드시 탐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모델은 갈수록 작은 규모로 반복되었습니다. 산과 언덕은 계층화된 세상들로 여겨지고, 사원의 건축 세부양식과 심지어 주거지도 우주의 구조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념은 토기나 악기 같은 공예품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세공품으로 많이 제작된 연체동물의 모습도 원주민들은 극도로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체동물의 껍질은 내면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종종 의식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루를 내어 환각제로 이용하거나 악기 오키리나로 제작하여 주술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기본 구조에 관한 믿음과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계층화된 우주 속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은 콜롬비아 원주민 집단에서는 흔

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은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유적과 유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1. 소라 모양 오키리나, 600~1600년, 5.5×12.7cm, 콜롬비아 나리뇨 제작



도2. 소라 모양 장식, 600~1600년, 7.1×2.7cm, 콜롬비아 쿤디나마르카 제작